

수신 : 원장

참조 : 경영본부장, 센터소장, 동북아팀장

<중국경제동향보고 2001-20>

2001. 5. 14

KIEP 북경사무소

최근의 중국경제 분석과 전망(1)

-사회과학원 춘계보고를 중심으로-

1. 개요

□ 최근 중국경제에 대한 국외의 일부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 산하 권위있는 연구기관이 적절한 거시경제 환경 정비가 시급하다는 견해를 강력히 제기하였음.

- 최근 중국사회과학원은 <2001년 春季經濟豫測報告>에서 人民幣 환율 안정,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채권시장의 구조개선, 내수확대 정책 추진,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제거 등을 중국경제의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
- 환율 안정은 무역흑자 및 외국인투자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바, 미국경제 경착륙 등 세계 경제 불안이 중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임.
- 안정적인 개인소득 증대를 위해 국채 금리 및 기간은 물론 기업의 투융자 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채권시장 개혁을 주장함.
- 또한 내수 확대를 위해 수입 증대, 저축의 효율적 투자 전환, 다국적 기업 진출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투자, 소비, 수출 등 경제 전부분의 여건이 작년에 비해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8% 경제성장을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음.

2. 중국경제의 주요 부문별 분석 및 전망

가. 무역흑자 및 외국인투자의 변화

□ 금년도 수출 증가세 둔화는 인민폐 환율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최근 7년간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순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경우, 人民幣의 對美 실질실효환율은 0.1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음.
- 금년에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각종 무역장벽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는 급격히 둔화되어 무역 흑자액이 대폭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임.

□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對美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큰 폭의 감소세는 없을 것임.

- 미국경제가 불경기였던 1991년에도 미국 전체 수입이 전년대비 1.4% 감소한 가운데 중국의 대미 수출은 예상과 달리 20%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는바, 이는 미국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소비자가 저가의 중국산 수입품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그러나 금년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은 2000년의 27.8%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임.

<표> 중국의 대외경제 현황

(단위 : 억 달러, %)

항목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1/4분기
수출입	수출입 (증감률)	3,252 (12.2)	3,239 (-0.4)	3,607 (11.3)	4,743 (31.5)	1,138 (15.9)
	수출 (증감률)	1,828 (21.0)	1,838 (0.5)	1,949 (6.1)	2,492 (27.8)	593 (14.7)
	수입 (증감률)	1,424 (2.5)	1,402 (-1.5)	1,658 (18.2)	2,251 (35.8)	545 (17.3)
	무역수지	404	436	291	241	47
외국인투자	건수	21,046	19,799	17,100	22,532	na
	계약액	517.8 (-29.34)	521.3 (2.21)	412.4 (-20.9)	626.6 (50.8)	159.9 (44.3)
	실행액	452.8 (8.51)	455.8 (0.67)	404.0 (-11.4)	407.7 (0.9)	79.8 (11.7)
외환보유고		1,399.9	1,449.6	1,547	1,656	1,759
환율(원/US\$)		8.2789	8.2789	8.2795	8.2781	8.2779

주: () 안은 전년 동기 증감률

자료 : 중국통계연감 해당 연도판, 2000년 수치는 <200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통계 공보>, 2001년 1/4분기 수치는 경제일보 보도에 의거

□ 동시에 중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수출 2위, 수입 1위 국가)인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도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최근 일본의 경기침체, 물가 하락, 엔화 평가절하 등으로 인해 일본산 수입품의 가격이 작년에 비해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금년 1월 중국 대일 수입 증가율은 13.6%로, 일본은 중국의 무역 상대국 중 수입이 증가한 유일한 국가였으며, 금년 대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더라도 대일 수출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역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유럽공동체 및 아시아 국가 역시 미국경제의 영향으로 인해 경제가 불투명한 상태인바, 중국의 同 지역에 대한 수출 역시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 반면, 향후 중국의 외국인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무역부문의 흑자폭 감소를 상쇄하여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임.

-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가 중국내 외국인투자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중국내 외국인투자는 주로 홍콩, 마카오, 대만이 50%이상을 차지, 미국기업의 비중은 7~8%에 불과하여 비중이 낮은 편이며, 둘째, 경기 둔화에 대비, 미 연준위는 지속적인 금리인하를 추진,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의 미국내 용자비용이 감소할 것임.
- 일본의 경기침체 지속은 상대적으로 일본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중국내 외국인투자중 일본기업의 비중은 1998년과 1999년 7.5%에 불과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1979년부터 2000년 4월까지 일본의 각종 對中 차관은 2조 6,461억 3,700만 엔에 달해 전체 차관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엔화의 평가절하는 중국의 원리금 상환액을 감소시킨다는 유리한 점도 있음.
- 또한 작년 투자 계약액중 80%는 금년내 실행될 것이기 때문에, 금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480억 달러를 상회하여 전년대비 7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이는 인민폐 환율 안정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금년도 중국의 수출 전망

□ 금년도 중국의 수출은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맞물려 작년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 IMF는 금년도 세계경제 성장률과 무역 증가율을 각각 4.2%, 7.7%로 예측하였으나, 다시 예상 성장률을 3.4%로 낮추었으며, UN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2.4%, World Bank는 가장 비관적인 2.2%까지 예측하고 있음.

○ 2000년 세계경제 성장률과 무역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4.7%와 10%였음.

□ 미국의 경기 침체: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전체 수출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는바, 홍콩을 통한 수출을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더욱 커짐.

- 중국의 한 경제학자는 미국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때, 중국 수출은 약 5% 감소한다는 분석을 제기,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가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증대는 중국 수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임.

- 특히 2000년 말까지 각국의 대중 반덤핑 제소는 총 417건에 달하고 있는데, EU가 90건, 미국이 78건, 인도 38건이며, 호주, 아르헨티나, 남아공, 멕시코 등도 모두 20건을 초과하고 있음.

○ 2000년의 경우, 반덤핑 제소는 총 36건으로 금액은 5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반덤핑 제소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세계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FTA도 수출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 국제 유가의 불안정 및 중국의 낮은 경쟁력도 수출에 불리한 요인인바, 주로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 수출품의 원가 상승은 수출 증가세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 수입 유가 상승, 국내 면화 가격의 상승 등은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 원가에 대한 인상 압력으로 작용, 경쟁력 약화를 조성하고 있음.

□ 중국내 일부 지방 당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액 포탈, 밀수 및 외환 밀반출 증가 등은 덤핑 및 밀어내기 수출 등 탈법을 조장,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수출입 관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 일부지역의 수출 증치세 환급 지연은 수출 기업의 자금 흐름을 악화시키고 있는바, 전국적으로 미지급 금액이 400억 元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국유기업의 수출 증가세 둔화 가능성: 중국 수출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대형 국유기업의 최근 수출 증가는 정부의 수출 촉진 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시스템의 실질적인 개혁이 절실한 실정임.

다. 채권 시장의 구조조정 필요성

□ 중국의 국채는 주로 장기 위주였으나 최근에 비로소 단기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하였음.

- 이는 3개월, 6개월, 9개월 등 단기 국채를 발행, 단기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3년 만기 국채 발행을 제한,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5~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여 장기 및 안정적인 자금 확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 때문임.

- 장기와 단기 국채의 결합을 통해 국채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한편, 인프라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국채 발행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임.

□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국채 이자율은 은행 저축금리보다 2%포인트 높게 유지되었는데, 이는 재정부문과 은행 수신부문 모두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왔음.

- 이는 2000년 국채 이자율이 인하되면서 해결되었으나 중국의 국채 이자율은 매우 불안정한데, 중국내에서는 리스크가 적은 국채 이자율이 은행 수신금리보다 약 1%포인트 높은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임.

- 장기(5년 이상) 국채에 실행되는 고정이자율에 물가 연동 금리 방식을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2.3~3.5%의 장단기 금리에 물가 연동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임.

□ 1994년 이전에는 국채 보유자는 주로 개인으로, 1993년의 경우 개인의 국채 보유량은 80% 이상이였으나, 1994년은 60%까지 감소하였으며, 최근에는 상업은행, 보험회사 등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

- 2000년에는 기관투자자들의 국채 보유 비중이 60%에 달해 점점 국채 보유 구조가 합리화되고 있는바, 향후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특히 향후 중국의 국채 발행은 정부 재정 확보 및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에 기여하는 동시에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조작에도 활용되어 통화량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전체 금융시장의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중국의 기업 채권시장은 주식시장과 함께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전이 정체되었음.

- 첫째, 정부 및 시장 주체의 기업 채권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예를 들어 기업은 주식시장 및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 채권 발행을 경시해 왔음.

- 둘째, 중국내에서 기업 채권시장이 발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성숙되지 못했는데, 특히 고위험, 이자 연체 관행 만연으로 투자자들이 채권시장을 기피해 왔음.(***)

1. 戴相龍 인민은행장, 중국 금융업의 진일보 개방 방침 언급

- 2001년 홍콩 포천포럼에 참석중인 戴相龍 인민은행장은 세계경제 발전이 전체적인 둔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된 통화정책의 지속적인 실시, 국내시장의 폭넓은 개혁, 외환보유고의 지속적인 증가 및 인민폐 환율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
- 戴행장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아시아의 경제금융 협력 촉진에 유리하며, 중국의 WTO가입이 아시아 경제금융협력을 위해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언함.
- 현재 외국은행이 중국내에 설치한 영업성 기구는 193개, 그중 아시아지역의 은행은 93개로 48.2% 차지함.(工商時報, 2001. 5. 9)

2. 周小川 證監委 주석, 인민폐 자유태환과 해외펀드의 역내투자 언급

- 2001년 홍콩 포천포럼에 참석중인 周小川 중국 증감위 주석이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 인민폐 자유태환 및 해외펀드의 중국내 투자 등을 언급함.
- 중국정부는 보다 많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對 외국시장 개방 및 인민폐 자유태환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지난 93년부터 중국은 인민폐 자유태환 목표를 확정하고 일정한 진전을 거두었으며, 아시아금융위기로 인하여 그 속도가 늦춰지고 인민폐 자유태환 문제에 대한 태도도 더욱 신중해졌으나 점진적으로 실현할 것임.
- 해외펀드의 증권시장투자 문제와 관련 周주석은 외국자본시장과의 상호 개방이 단기안에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신중한’ 발전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동 과정에 많이 기회가 나타날 것이라고 함.
- 지난 10년간 중국 증권시장은 빠른 발전을 거듭, 이미 1,100여개 상장회사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上海와 深圳거래소 상장회사의 주식 시가가 GDP에

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과거 중국은 계획경제모델에 따라 쿼타방식으로 상장회사를 확정, 동 과정에서 사인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가 존재했으나 향후는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모두 상장할 수 있고 국민대우를 향유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상장전 회사의 자질 제고 등이 하나의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증권시장 진출을 서둘러서는 안되며, 향후 상장회사에 대한 정부의 요구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함. (工商時報, 2001. 5. 9)

3. 國務院, 시장경제 질서 정돈 및 규범 관련 결정 발표

- 지난 5월 8일 국무원은 <시장경제 질서 정돈 및 규범 관련 결정>을 공포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10·5시기 시장경제 질서 정돈 및 규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저질 모조 상품의 제조 및 판매와 탈세, 외환사기, 밀수 및 위조화폐의 제작과 밀매 등 불법 범죄 활동 단속
 - 건축시장 정돈
 - 금융질서 정돈 및 규범
 - 재정경제 기율의 엄격화
 - 중개기구의 행위 규범 및 중기기구의 시장접근제도 실시
 - 문화와 관광시장 정돈 추진
 - 지역적 폐쇄와 부문 및 업종간 독점 타파
 - 안전 생산 관리와 안전 감사 강화(國際商報, 2001. 5. 9)